

생태 위기 상황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그리고 윤리적 입장*

- 존 캡(John B. Cobb)의 과정신학**과 도덕경의 도***의 관점에서

박삼경 (서울신학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과정신학의 하나님 - 세계 접근 방식
 - 1. 존 캡(John B. Cobb, Jr. 1925-2024): 생태학적 관심사
 - 2. 하나님의 전통적 관념에 대한 존 캡의 비판
 - 3. 설득력 있는 힘으로서의 하나님
- III. 도 - 세계 접근 방식
 - 1. 도의 개념: 자연의 질서
 - 2. 도의 우주론
 - 3. 무위(無爲)의 교리: 삶의 방식
- IV. 존 캡과 도의 입장에서 본 인간과 자연의 상호 배려 관계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3.11>

- * 이 논문은 2025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 미국의 과정신학은 영국의 캠브리지대학 교수였던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의 과정철학을 바탕으로, 그가 하버드 대학교 철학 교수로 초빙되어 가르칠 때 그의 제자인 핫슨(Charles Hartshorne)이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스승의 철학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탄생한 것이다. 과정신학의 1세대 학자들로서 핫슨을 포함하여 위이먼(Henry N. Wieman), 윌리엄즈(Daniel D. Williams), 등 그리고 2세대의 대표적인 학자들은 오그덴(Schubert M. Ogden)과 캡(John B. Cobb, Jr.)이다. 목창균, 『현대신학 논쟁』 (도서출판 두란노, 2005), 383-7.
- *** 도덕경의 도는 도가라는 노장철학에서의 도를 말한다. 도가와 도교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도가는 노장철학을 말하고 도교는 중국의 토속신앙의 종교이다. 최근덕, “한국의 전통 속에 나타난 환경윤리,”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엮음,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도서출판 모색, 2005), 262.

• ABSTRACT •

Theological and Ethical Posi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in the Context of the Ecological Crisis: From the
perspectives of John B. Cobb's Process Theology and the Tao in the
Tao Te Ching

Associate Prof., Park, Sam Kyung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ological and ethical perspectives on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the ecological crisis, drawing on John Cobb's process theology and the concept of the Tao in the *Tao Te Ching*. Cobb understands God as a personal being who engages the world through persuasion, while the Tao is viewed as the impersonal source and ordering principle of all things.

Despite this difference, both perspectives emphasize the organic interconnect-
edness and interdependence of humans and nature. They suggest that ecological
healing requires a mutually caring relationship grounded in respect for the in-
trinsic value of nature, and that such a relationship is essential for ecological
well-being and sustainable life.

Key words: Process Theology, Tao, Ecological crisis, John B. Cobb, *Tao-Te
Ching*, Simplicity *Ch'I*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인류는 심각한 생태 위기에 직면한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구는 하늘과 땅, 바다와 공기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산업 폐기물과 농약,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점점 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바다는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로 넘쳐나고, 육지는 자동차와 산업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가스로 인해 병들어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구는 더 이상 인류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피폐화된 '죽음의 공동묘지'로 변해 가고 있다. 지구 생태 위기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구가 파괴된다면 인류의 생존 역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류와 지구는 분리될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생태 위기는 단순히 과학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신학적·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 위기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뉴턴의 기계론적 물질관과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간중심주의를 전제하며,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자연을 대상화하고 기계화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왜곡시켰고, 그 결과 오늘날의 심각한 생태 위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소외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인류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 없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과정신학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과정신학은 자연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창조적 드라마로 이해하며, 과정신학자인 존 캡은¹⁾ 모든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1) 존 캡의 과정신학을 개괄적으로 알기 원하면 다음 책을 참고하라. 스탠리 그랜츠 · 로저 올슨 지음 신재구 옮김 『20세기 신학』 (IVP, 1997), 218-223.

또한 그는 동양사상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일체성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존 캡의 과정신학과 『도덕경』의 도(道)를 비교·성찰함으로써, 지구 생태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인간과 자연의 왜곡된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캡의 과정신학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이해와 인간·자연의 유기적 상호 의존성을 살펴보고, 이어 도의 관점에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고찰한다. 도의 관점에서 인간은 자연의 중심이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과 자연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이해는 인간이 자연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함을 요청한다. 끝으로 캡과 도의 사유를 통해 드러나는 상호 배려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창조 영성²⁾에 기초한 생태 윤리의 삶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과정신학의 하나님 - 세계 접근 방식

1. 존 캡(John B. Cobb, Jr. 1925-2024): 생태학적 관심사³⁾

과정신학은 알프레드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와 찰스 핫슨(Charles Hartshorne, 1897-2000)의 철학적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과정의 개념과 신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켰다. 핫슨은 그것을 신학에서 더욱 정교화하였다. 그 후 화이트헤드는 수학과 철학을 다루었는데, 이는 부정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존 캡은 화이트

2) 조성호는 창조 영성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의 차원으로 현대사회의 생태 영성과 연결하면서 인간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도 전체 피조물의 일부라는 생태학적 세계관을 말한다. 조성호, “창조 영성과 기후 위기 시대의 한국교회,” 『신학과 실천』 94(2025), 530-537.

3) John B. Cobb, Jr., *Is It Too Late?* (Denton, Texas: Environmental Ethics Books, 1995), 11.

헤드가 자연 철학을 발전시킨 후, 형이상학적 우주론으로 전환했다고 말한다.⁴⁾ 화이트헤드는 우주론에서 신에 관해 글을 썼지만, 엄격한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제한했다. 그의 견해는 인류의 종교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신의 본질과 역할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과정신학은 실제로 화이트헤드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의 지속적인 작업과 연구로 인해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화이트헤드의 용어 중 일부를 차용했다. 핫손은 그러한 추종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기본적인 철학적 개념을 인용하였고, 그의 종교철학에서 구체적으로는 신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존 캡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가져와 체계적인 현대신학으로 옮겨 왔다. 캡은 하나님과 세계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둘 중 하나에 대한 지식은 다른 하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응답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⁵⁾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구체적인 인간의 종교적 경험을 통해 이해되고 이는 다시 자연계의 관념으로 되돌아간다.

캡에 따르면, 화이트헤드는 실제적인 것은 과정 중(in process)에 있다고 믿었다. 과정 중이 아니면 변화하거나 변형되지 않는 것은 과정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다.⁶⁾ 시간적 과정은 하나의 실제적인 개체에서 다른 실제적인 개체의 전환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개체는 순간적이기 때문에 존재하자마자 사라진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였다. 그는 각 시간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더 작은 실제적인 개별 사건을 설명했다.

4) John B. Cobb, Jr. and David Ray Griffin, *Process Theology: an Introductory Exposi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163. 데이비드 레이 그리핀, “프로세스 종말론,” 제리 L. 윌스, 편집. 『옥스퍼드 종말론 핸드북』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2008), 295-307.

5) Thomas A. Langford, *Practical Divinity: Theology in the Wesleyan Tradi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230.

6) Cobb and Griffin, *Process Theology*, 14.

외부 관점에서 보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이트헤드가 합생(concrescence)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난다. 각 순간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고 그 순간은 점점 더 작은 순간들로 구성된다.

캡의 신학적 관심의 연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생태학적 모티브이다. 그는 화이트 2세의 논문, “생태 위기의 역사적 기원(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을 통해 지구 위기를 깨달았다고 말한다.⁷⁾ 캡에 의하면 그것은 그의 신학적 소명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생태학적 맥락에서 하나님과 세계와 관련된 인간의 관계에 관한 그의 접근 방식은 그의 작품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학과 생태학의 측면을 다루는 몇 편의 짧은 글들을 그는 발표한다.⁸⁾ 캡은 현재 생태 위기의 뿌리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이원론에 있다고 본다. 이원론은 근대 초기 과학과 철학에서 파생된 세계에 대한 인간 우월이라는 특정한 전제를 갖는다. 그에게 있어 극단적인 인간중심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이원론은 현대성의 특징이다.

호남 신학대학교의 신재식 교수는 캡의 관점에 대해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 신 교수는 전통적인 기독교 이원론은 근대 초기의 데카르트가 인간(정신)-자연(물질)의 이원론과 과학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손을 잡았다고 언급한다. 과학과 철학은 그 시기에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인간과 자연은 상당히 다르다는 신념을 강화했다고 신 교수는 말한다. 자연은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객관적인 물질이므로 인간이 나름대로 처분할 수 있다

7) Lynn White, Jr. *op. cit.*, 1203-7.

8) John B. Cobb, “Christian Theism and the Ecological Crisis,” *Religious Education* (66, 1971), 31-5. “Ecology, Ethics and Theology,” in *Toward a Steady-State Economy*, ed. Herman E. Daly (San Francisco: W.H. Freeman and Company, 1973), 303-20; “Postmodern Christianity in Quest of Eco-Justice,” in *After Nature’s Revolt: Eco-Justice and Theology*, ed. Dieter T. Hess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21-39.

는 것이다.⁹⁾ 캡은 철학사에서 이러한 이원론 개념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인간 우위의 이원론이 매우 강력하여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한다.¹⁰⁾ 생태 위기의 이면에는 이렇게 과학, 철학, 그리고 종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계관이 있다.¹¹⁾

캡은 화이트헤드의 과정 사상이 데카르트적 존재론의 이원론을 극복한다고 본다.¹²⁾ 화이트헤드는 현대 생태학이 보여주는 환경 파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써 모든 사물의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의 필요한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화이트헤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 참여하는 하나의 창조적인 드라마로서 자연을 이해한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유기체적인 세계관이다.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인 세계관은 생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독교를 건설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한다.¹³⁾

2. 하나님의 전통적 관념에 대한 존 캡의 비판

존 캡은 과정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을 비판한다. 캡은 전통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거부한다. 1) 우주적 도덕가로서의 하나님; 2) 불변하며 무감각한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3) 통제하는 힘으

9) Jae-Shik Shin, "Change, Rhythm, and Spontaneity: Revisioning the Reality of God from East Asian Perspective," (Doctoral diss, Drew University, 1997), 32.

10) Charles Birch & John B. Cobb, *The Liberation of Life* (Denton, Environmental Ethics Books, 1990), 98-102.

11) Shin, "Change, Rhythm, and Spontaneity," 32.

12) 몰트만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특별히 구체화(embodiment)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전통적인 이원론을 극복한다. 이는 몰트만의 생태신학에 있어서 주요한 개념이다. Hyeok-Su Chae, "Jurgen Moltmann's Ecological Theology and Christian Education Application," 『신학과 실천』 95(2025), 319.

13) Hyeok-Su Chae, "Jurgen Moltmann's Ecological Theology," 34.

로서의 하나님; 4) 현상 유지(Status Quo)를 승인하는 하나님; 5) 남성으로서의 하나님 등이다.¹⁴⁾ 이러한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은 적어도 네 가지 이유로 인해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¹⁵⁾ 첫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현대 경험에 비추어 미약한 기반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현대 의식 속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이 뚜렷하게 또는 중심적으로 기독교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전통적인 개념들이 신약성서에서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뚜렷한 근거를 두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뚜렷한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고 심지어 충격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의 세 번째 어려움은 세상에서 경험한 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⁶⁾ 악의 문제는 오랫동안 악의 사실과 결합하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두 가지 주장에 의해 생성된 지적 수수께끼로 여겨져 왔다.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악에 대해 제시한 전통적인 대답은 현대에서 점점 더 효과적이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의 현실은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대한 믿음과 맞지 않는다. 네 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완전한 인간성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¹⁷⁾ 이는 특히 창조주, 역사의 주, 심판의 주, 등 성서에서 파생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반대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하나님의 개념¹⁸⁾들은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 특히 불변성, 불감성, 영원

14) Cobb and Griffin, *Process Theology*, 8-9.

15) John B. Cobb, Jr., *God and the Worl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5), 24.

16) Cobb, Jr., *God and the World*, 24. 캅은 최종적인 악은 영속적인 소멸로서의 시간성의 구조를 말한다. 이런 면에서 천국은 영속적인 실재이다. 존 캅 & 데이비드 그리핀, 공저. 류기종 옮김, 『과정신학』 (도서출판 열림, 1993), 168-169.

17) Cobb, Jr., *God and the World*, 27.

18) 캅은 전통적 하나님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섯 가지 접근 방식을

성 그리고 완벽성의 개념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인의 의식에서 고전적인 전통의 하나님은 온전하고 자유로워지려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결림들로 작용한다. 캅은 인간에 대한 실존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하나님의 개념은 인간의 무력함과 죄성 그리고 무가치함을 강조한다고 비판한다.¹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과 인간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고, 속으로 악해도 불구하고 겉으로 선하게 나타나는 이중적인 갈등에 순응하는 것이며, 외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생생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그는 비판한다.

캅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과학적 우주관에 상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개념, 즉 ‘부르시는 분(The One Who Calls)’이라고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비판한다.²⁰⁾ 예수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보다 인간과 함께, 인간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에 관해 이해하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도록 방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책임을 바로 지게 하기 위하여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주장한다.²¹⁾

제시한다. 1) 인간 자신과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이 작은 부분일지라도 전체(whole)가 가져야 할 통일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 2) 과학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질서(order)를 관찰하고 그 질서가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 3) 자신의 존재가 다른 어떤 것에 절대적으로 의존(absolute dependence) 한다는 느낌을 통해; 4) 자신의 도덕적 경험(moral experiences)에서 절대적인 의무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5) 더욱 독특한 종교적 경험(religious experience)을 통해 고전적인 하나님을 알아간다. Cobb, Jr., *God and the World*, 21-2.

19) Cobb, Jr., *God and the World*, 30

20) Cobb, Jr., *God and the World*, 42, 63-4.

21) Cobb, Jr., *God and the World*, 67.

3. 설득력 있는 힘으로서의 하나님

존 캡은 화이트헤드의 과정 사상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발전시킨다. 하나님은 정적이고 불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도 과정에 있으며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가는(become)” 것을 목표로 한다. 캡은 창조적이고 응답적인 사랑²²⁾의 하나님 개념으로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과정 개념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분으로 상상한다.²³⁾ 부르시는 분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생태학적 모델의 완벽한 예는 세상의 현실을 단순하게 수용하고 이에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²⁴⁾ 이러한 캡의 하나님의 개념은 화이트헤드의 하나님에 대한 양극성(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 관념을 성서적 계시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표현으로 잘 발전시킨 것이었다고 신재식 교수는 말한다.²⁵⁾

캡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전능과 강압으로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 세상과 상대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이해한다.²⁶⁾ 하나님은 방대한 상호 의존의 광대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포괄하므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일부이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부분들의 총체이거나 독립성과 자결권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다.²⁷⁾ 이는 유신론의 일종인 ‘범재신론적(panentheism)’인 한 형태이다.²⁸⁾

22) Cobb, and Griffin, *Process Theology*, 41-62.

23) Cobb, Jr., Cobb, Jr., *God and the World*, 45.

24) Birch & Cobb, *The Liberation of Life*, 195.

25) Shin, “Change, Rhythm, and Spontaneity,” 40-1.

26) Cobb, and Griffin, *Process Theology*., 73-76.

27) Cobb, Jr., *God and the World*, 79.

28) Cobb, Jr., *God and the World*, 80. 이창호는 생태신학의 유형을 범재신론적 유형으로 맥페이그(Sallie McFague, 1933-2019)와 몰트만(Jurgen Moltmann, 1926-2024)을 예

갑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별개의 존재로서 상호 작용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입장을 자신의 우주적 관점에 포함 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모든 것은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 밖에 있거나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거나 단순히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다. 세상의 특성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상은 그 자체로 신적 경험의 새로움과 풍요로움을 더한다.²⁹⁾

하나님과 다른 실체와 구별되는 점은 하나님이 삶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창조적 힘이라는 것이다. 갑은 특히 하나님이 창조성의 원천임을 강조하며 이 점에서 화이트헤드를 넘어선다.³⁰⁾ 하나님은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novel possibilities*)을 도입하며,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복잡하고 포괄적인 생명이라는 질서를 낳도록 설계되었으며, 항상 그 질서를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그 질서를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삶은 이러한 종류의 “새로움(*novelty*)”³¹⁾의 효과와 관련이 있다. 이는 상호의존적 질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무기력과 갈등으로 가득 찬 과거가 초월하고 또한 새로운 감정으로 과거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변형된 질

로 들고 있고 탈범재신론적인 유형으로 맥다니엘(Jay B. McDaniel, 1949-현)과 루터(Rosemary R. Ruether, 1936-2022)를 예시로 제시함. 이창호, 『생태신학과 기독교윤리 실천』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4), 16.

29) Cobb, Jr., *God and the World*, 79-80.

30) John B. Cobb, Jr., *A Christian Natural Theology: Based on the Thought of Alfred North Whitehead* (The Westminster Press, 1965), 204-14. 화이트 헤드는 양극적 신개념(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으로서 신과 세계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신은 두 개의 축, 즉 정신적인 축으로서 원초적 본성과 물질적인 축으로서 결과적 본성을 갖고 있다. 이 양극적 신개념이 세계와의 초월과 내재의 역동적 관계를 잘 나타낸다. 김희현, “과정신학의 범재신론 지평에서 본 안병무의 민중 메시아론,” 『신학사상』 140 (2008), 242-3.

31) 류기종은 *novelty*를 신생으로 번역함. 존 갑 & 데이비드 그리핀, 공저. 류기종 옮김, *op. cit.*, 39.

서로 대치된다.³²⁾ 하나님은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세상의 반응에 응답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하나님 자신의 감정과 반응 안에서 새롭게 변형시켜서 포괄하려는 분이다.

캅은 하나님을 새로운 미래로 부르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의 약점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말한다. 캅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한다.³³⁾ 첫째, 열린 미래로 나아가는 움직임의 감각은 오늘날 시대의 점점 더 커지는 감성(sensibility)의 특징이다. 인간의 감성이 더 요구되는 미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르시는 하나님의 개념은 예수님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서 유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증거와 중요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 인간을 만나서 그 인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세상에 구현하도록 부르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악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힘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세상은 더 이상 전능한 주권자의 뜻을 구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가능성에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넷째, 이렇게 이해되는 하나님은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해방하는 힘이다. 물론 해방의 힘은 모든 제약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에게 활력 있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충족시켜 준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앞으로 부르시는 분(The One who calls forward)’으로서 캅은 확신한다. 이러한 캅의 새로운 하나님 이해는 세상과 인간을 보다 더 본질적인 유기적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이는 도덕경이 말하는 도의 세상 접근 방식에 맞는 면이 있다. 참된 도를 언어로 표현

32) Birch & Cobb, *The Liberation of Life*, 188-89.

33) Cobb, *God and the World*, 63-64.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도는 모든 존재와 힘의 근원으로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존재하게 한다.

III. 도 - 세계 접근 방식

1. 도의 개념: 자연의 질서

도(道)의 개념은 도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생태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하다. 도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누군가가 가는 길을 의미한다. 길 혹은 ‘방법’, ‘원리’, ‘진리’, 그리고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고대 중국 철학 학파의 주요 개념인 도의 주요 번역어인 ‘길’은 사물이 질서를 잡는 방식을 의미한다. 도의 개념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도가 말하는 세계관과 기독교 비전의 일부가 서로에게 줄 중요한 의미가 있다.³⁴⁾

도(道)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 없음(무명)이다. 『도덕경』의 첫 번째 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³⁵⁾ 『도덕경』 25장에 도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 나는 그것을 도라고 부른다. 억지로 이름을 붙이면 크다고 부르겠다. 도는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거나 특정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즉 인간 사과의 경계에 제한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노자에 의하면 도는 이름이 없고 이름이 없는 단순함이다. 일단 이름이 생겨나면 도의 단순함이 이름을 가진 개별적인

34) Cobb, and Griffin, *The Liberation of Life.*, 62.

35) Wing-Tsit Chan,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139. cf. 노자 원전. 오강남 풀이, 『도덕경』 (현암사, 2003), 19.

것들로 쪼개지고 그러면 멈춰야 할 때이다.³⁶⁾ 어떤 말이나 이름도 자연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낼 수는 없다. 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형태도 없다. 그러나 도는 통일성과 전체성을 보여준다.³⁷⁾ 그리고 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³⁸⁾

왕필(王弼, 226-249))의 논평과 함께 도덕경의 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석으로 오래동안 인식되는 하상공(河上公)에 따르면, 도의 변하지 않는 본성은 변화시키는 힘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어디에나 널리 퍼져 있으며 모든 곳에 흐른다. 어디에서나 작동한다. 도는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는 스스로 존재하며 그 자신의 존재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³⁹⁾ 도는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의 원초적인 근원이다. 도는 모든 출생이 발생하고 모든 죽음이 돌아가는 영역이다. 도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광범위하며 끝이 없이 이어진다. 도는 내재적이면서도 초월적이다.

『도덕경』 34장에서 대도(大道)는 좌우 어디에나 흐르고, 모든 만물은 그것에 의존하며 존재한다. 또한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사랑하고 영양을 공급하지만, 그것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일부 번역가들은 도를 이성, 섭리, 로고스, 심지어 신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우주의 지배자, 군주, 지휘관, 건축가, 그리고 제작자라는 의미에서 도를 ‘신’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은 처음부터 분명하다. 정치적 지배자나 자연 외부의 창조자라는 이미지는 도

36) Wing-Tsit Chan, *The Way of Lao Tzu (Tao Te Ching)*, (Macmillian publishing Company, 1963), 97.

37) Max Kaltenmark, *Lao Tzu and Taois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38, 52. *Tao Te Ching*, Chapters 7, 16, 25.

38) *Tao Te Ching*, Chapters 7, 16, 25. 왕필에 관하여 참고. 노자 저. 김화목 옮김,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 (홍익출판사, 2000). 13-16. 하상공에 관하여 다음 책을 참고. 이석영 역주, 『노자 도덕경 하상공장구』 (소명출판, 2007), 6-8.

39) Alan Watts, *Tao The Watercourse Way* (New York: Pantheon Books, 1975), 40.

의 관념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는 우주의 궁극적인 현실이자 에너지이며 존재와 비존재의 기반이다. 앨런 왓츠(Alan Watts, 1915-1973)는 도를 물길(The watercourse way)이라고 부른다. 왓츠에게 도는 자연의 흐름, 표류, 과정일 수 있다. 도를 자연의 질서와 동일시한다. 도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며, 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공간과 시간의 자연적인 곡률에 의해서 다스린다. 제임스 레게(James Legge, 1815-1897)는 이를 자발성(spontaneity)이라고 부른다. 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신의 지혜와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간다.⁴⁰⁾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2. 도의 우주론

도의 우주론은 『도덕경』 25장과 42장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도덕경』 25장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땅 앞에 존재했던 분화되지 아니한 완전한 무언가가 있었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그것은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다. 어디에서나 작동하며 위험에 자유롭다. 우주의 어머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도라고 부른다. 만일 내가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위대하다고 부를 것이다. 노자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이라고 말할 때, 그는 1장과 4장에서 이름 없는 도가 하늘과 땅의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이런 면에서 도는 신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다.

『도덕경』 42장은 우주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도는 하나를 만들었다. 하나가 둘을 생산했다. 둘은 셋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셋은 만 가지를 생산했다. 만 가지는 음(陰)을 운반하고 양(陽)을 포용하며 물질적 힘(氣)을 섞어 조화를 이루었다.⁴¹⁾ 이 장에서 종종 하나가 원래의

40) James Legge, *The Text Book of Taoism*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69.

물질적인 힘, 또는 위대한 궁극(氣)을 뜻하며, 둘은 음(陰)과 양(陽), 셋은 원래의 물질적 힘과 혼합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생산은 개인적인 창조물이나 의도적인 발생이 아니라 자연적인 인과관계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다.

하상공에 따르면 도(道)는 기(氣)를 발산하여 세상을 창조하고 변화를 일으킨다.⁴²⁾ 기라는 단어는 번역하기 어렵다. 가장 초기의 정의는 구름의 안개, 즉 문자 그대로 구름의 증기이며,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증기를 말한다: 습, 공기 또는 가스 등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더 근본적인 실체, 창조력, 에너지, 그리고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주에 퍼져 있는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적인 물체이다. 이는 우주의 구성에 대한 통합적 이해 속에서 물질과 영을 모두 포함한다. 이 호흡의 개념인 기는 하상공이 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창조 과정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도덕경』 42장에 대한 하상공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은 본연의 호흡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화를 이룬다. 가슴에는 내장이 있고, 각 뼈에는 골수가 있고, 풀과 나무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로 기가 흐른다. 그런 그들은 장수할 수 있다.⁴³⁾ 또한 『도덕경』 42장

41) Wing-Tsit Chan,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160. 노자 원전. 오강남 풀이, 『도덕경』, 183.

42) Alan K. I. Chan, *Two Visions of the Wa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123. 도가 기를 발산하여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기화 우주론이라고 한다. 이석영 역주, 『노자 도덕경 하상공장구』, 14-17. 한면회는 동아시아의 자연관을 기-생태주의(Ch'i ecology)로 보면서, 유기적 전체론을 주장한다. 기-생태주의의 규범적 원리로 '생기 존중의 원리', '호혜성의 원리', 그리고 '자율성의 원리'를 언급하면서, 기가 소생하는 자연에서 인간은 생태적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생태 영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면회, 『미래세대와 생태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7), 346-347, 358-360.

43) Chan, *Two Visions*, 127. 여기서 기를 화기라고도 함. 이석영 역주, 『노자 도덕경 하상공장구』, 269.

에 대한 왕필의 주석이다. 만 가지의 생물은 무수히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이다. 만물은 형태가 다양할지라도 모두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과관계의 규칙은 통일의 원리이기도 하다.⁴⁴⁾ 아울러 도의 우주론은 ‘만물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만물의 하나 됨은 생성력인 기의 혼합을 통해 만들어진다.

장자에게 있어서 우주론은 변화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만물의 통일성’은 여전히 그에게 중요한 주제이다. 그는 우주를 사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생각한다. 인생은 질주하는 말처럼 계속된다.⁴⁵⁾ 만물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진화적 성격을 띠게 된다. 모든 것은 삶의 다양한 단계를 거쳐 세균에서 척추동물인 말로 그리고 인간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와 빠른 성장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다. 도는 모두를 포용하고 하나로 결합한다. 하늘과 땅과 나는 공존하며, 만물과 나는 하나다.

도에서 만물의 통일성은 개성과 분리될 수 없다. 통일성과 개성의 관계는 덕(德)에 의해 구분이 가능하다. 덕은 개별 사물에 부여된 도다. 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지만, 덕은 각 사물이 도에서부터 얻은 것이다. 도는 만물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원리이지만 덕은 각 사물에 내재된 도이다. 덕은 사물에 결정적인 특징이나 성격을 부여하는 명확한 원칙의 구현인 개별화의 요소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연의 질서는 강제적인 질서가 아니며, 외부 힘에 존재가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법과 계명의 결과가 아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세상의 과정은 다른 과정과 연결되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기에 우주의 모든 과정의 조화가 성립될 것이다. 모든 것의 길은 우주의 하나의 길인 도다. 모든 존재들의

44) Chan, *Two Visions*, 48. 노자 지음. 김화목 옮김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 179.

45) *Chuang Tzu*, tr. Herbert A. Gil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889), Chapter 17.

상호 의존성 때문에, 모든 것들은 임의적이고 인위적이며 그리고 추상적인 질서 개념에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조화는 외부의 강요 없이 스스로 자연(自然) 자체를 산출한다.

3. 무위(無爲)의 교리: 삶의 방식

도의 본성이 이름이 없는 것이 특색인 것처럼, 도의 활동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무위의 특징이 있다. 장자는 무위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한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른나무와 죽은 재’라는 뜻은 아니라, 오히려 ‘인위적인 것을 취하지 않음’, ‘관여하지 않음’, 또는 일이 ‘저절로 알아서 진행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변함없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상태로 모든 것을 지지한다. 따라서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도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도는 그것들을 생산하지만 그것들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지만 그 일에 대한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이익을 주고 그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동시에 사물은 도에 의해 지배되며 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를 따르면 모든 것은 번성하고 본래의 목적과 운명으로 돌아갈 것이다. 도를 실천하면 하늘은 맑아지고, 땅은 고요해지며, 영적인 존재들은 신성해지고, 골짜기는 가득 차고, 모든 것은 살아나겠지만, 도가 없다면 그들은 지치고, 쇠약해지고, 무너지고, 시들어 버릴 것이다.

노자는 인간의 삶에서 이러한 무위⁴⁶⁾를 실천하기 위해 인간은 극단적이고 사치스럽고 과도한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욕망을 버려야

46) 무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적인 수동상태인 불위(不爲)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이치를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함. 이를 무위자연이라고도 한다. 조용훈, 『동서 양의 자연관과 기독교 환경윤리』 (대한기독교서회, 2002), 115, 116.

한다. 과도한 경쟁, 그리고 감각적인 것들을 피해야 한다. 도는 사랑도 미움도 없으며, 어떤 것도 만들지도 않는 무위한 것이다.⁴⁷⁾ 그리고 인간은 만족에 만족하기(to be contented with contentment)를 원한다. 여기에 언제 멈추어야 할지 알라고 그는 말한다. 노자는 인간에게 겸손함(humility)을 유지하고 수치(disgrace)를 받아들이라고 권고한다.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서 기꺼이 살 의향이 있고, 낮아지고 복종하며, 다른 사람보다 뒤에 있지만 결단코 앞서지 않으며 그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라고 언급한다. 한마디로 약해지라고 그는 말한다.⁴⁸⁾

노자는 물, 계곡, 조각되지 않은 나무토막을 도교적 삶의 모델로 사용한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함을 상징한다. 단순함이란 윤리적으로는 교활함과 영리함에서 벗어나서 서로 경쟁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이는 이기적인 이윤 추구에 헌신하지 않고, 위선적인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생활방식이다. 단지 단순함과 평범함, 그리고 순박함과 순수함으로 특징지어진다. 자연물을 통해 알게 되는 도교적 단순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에 사랑을 갖도록 한다. 인간 곁에 있는 자연을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그 자연의 의미를 공감하는 정서적 태도를 지니게 한다. 이러한 자연을 통해 인간이 생태적 감수성⁴⁹⁾을 지니게 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생태적 가치를 가장 우선하는 단순한 미적 삶으로 변화 되어갈 것이다.

47) 권영선,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도서출판 모색, 2005), 86.

48) 장자는 이러한 삶을 천인합일(天人合一)로 말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참사람이라 함. 조용훈, 『동서양의 자연관과 기독교 환경윤리』, 116-117.

49) 생태적 감수성이란 자연의 아름다움 및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생태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공감 능력이다. 박미경,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생태교육 방법 연구,” 『신학과 실천』 88(2024), 580.

IV. 존 캡과 도의 입장에서 본 인간과 자연의 상호 배려 관계

존 캡과 『도덕경』의 도는 각각 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캡은 신을 인격적 실재로 이해하는 반면, 도는 인격적 존재가 아닌 만물의 근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관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유기체적으로 파악하며, 나아가 상호 배려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상호 배려는 지구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캡과 도의 사유에서 상호 배려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근거는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고 관계성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이는 대립이나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공생의 관계를 지향한다. 기존의 이원론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간중심주의를 전제해 왔으며, 서구 근대 사회는 자연을 기계로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반해 왔다. 그러나 캡은 세계를 유기체적으로 이해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며 생성적인 과정 속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인간 또한 진화적 발달의 산물로서⁵⁰⁾ 자연과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도덕경』의 도의 관점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이해된다.⁵¹⁾ 도는 기를 낳고, 기는 음양을 낳으며, 음양의 상호 작용 속에서 만물이 생성된다고 본다. 이는 우주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인간의 신체와 삶 또한 자연과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자연보다, 정신이 육체보다 더 소중하다는 기존의 위계적 구분을 배제

50) 찰스 버치·존 캡 지음, 양재섭·구미정 옮김, 『생명의 해방』 (나남, 2010), 186.

51) 이창호는 아웃카의 동등배려(equal regard)를 생태학적 사랑의 관점으로 제안한다.

이창호, 『생태신학과 기독교윤리 실천』, 114-115.

하고, 인간과 자연이 각각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인정한다.

서구의 이원론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간중심주의를 전제한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를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왔다. 이에 반해 캅과 도의 입장은 인간과 자연을 각각 자기 안에 내재된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이해한다.⁵²⁾ 자연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며 존중의 대상이다. 인간은 자연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삶의 토대를 부여받고, 자연의 생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조건을 충족 받는다.

이러한 존재 상호 간의 의존성은 인간과 지구의 다른 생명 종들이 본질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게 한다. 나아가 인간과 지구의 다른 요소들 사이에는 친족 관계가 성립된다. 기독교적 맥락에서 볼 때, 인간과 자연을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피조물로 이해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친족(kin-dom)⁵³⁾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⁵⁴⁾ 이러한 이해는 인간과 자연이 지배와 이용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배려와 돌봄의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요청한다.

상호 배려(care)⁵⁵⁾ 또는 돌봄(caring)은⁵⁶⁾ 서로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52) 이창호, 『생태신학과 기독교윤리 실천』, 249.

53) 저자의 스승인 Ada Maria Isasi-Diaz는 하나님의 나라인 kingdom of God을 Kin-dom of God으로 대체한다. kin은 친척을 뜻하는 말로서, 이사시 디아즈는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용한다. Ada Maria Isasi-Diaz, *Mujerista Theology* (New York: Orbis Books, 2004), 83.

54) 분회퍼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을 공동체적 교제라는 삼중적 교제를 말하면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를 한다. 그리고 자연을 타자의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인간이 그 자연을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호, “지구 위기와 기독교 창조 영성-디트리히 분회퍼의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이해를 중심으로,” 94(2025), 『신학과 실천』 145-6. 생태 여성학자인 샬리 맥페이그(Sallie MacFague)는 지구를 하나님의 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진 신성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말한다. 이는 지구를 단지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가치를 지닌 생명체로 재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Sallie MacFague, *The Body of God - An Ecolog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윤리적 덕목으로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차별적 위계를 극복하고 생태 파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생태 윤리의 핵심 지향점이 된다.⁵⁷⁾ 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구현되는 이 땅의 살림으로 이해될 수 있다.⁵⁸⁾ 살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관계적 개념이다.⁵⁹⁾ 만일 이러한 살림이 회복되지 않고 생태 파괴가 지속된다면, 인류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도덕경』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적인 삶의 태도를 제시한다. 이는 단순함의 윤리이다. 단순함은⁶⁰⁾ 극단과 과잉을 피하고, 검약과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다. 단순한 삶의 방식은 이익과 소비의 극대화를 미덕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밝은 미래를 향해

55) Virginia Held 저, 김희강 · 나상원 역, 『돌봄: 돌봄 윤리』 (박영사, 2017), 71. 배려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어떤 누군가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으로 정의함. 배려는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는 윤리적으로 중요한 방식이며 미덕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태도로서 모든 인류의 안녕을 고려할 수 있다.

56) 전통적인 경제체제의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돌봄이 있었다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돌봄은 ‘보이지 않는 가슴(invisible heart)’이 중요하다. 김경은, “현대 돌봄 논의와 돌봄 형성,” 『신학사상』 208 (2025), 427. 신학적으로 관계의 돌봄을 제도화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치유의 과정이다. 이러한 돌봄은 사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와 연결되어지는 공적인 영역인 것이다. 조현숙, “돌봄, 상호의존의 연결망,” 『신학과 실천』 84(2023), 464-466.

57) 이성호,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사유 - 탈식민적 생태비평과 초객체 이란 그리고 생태신학적 함의,” 『신학사상』 199 (2022), 313.

58) *Ibid.*, 315-6. 이성호는 그의 논문에서 생태신학의 유형을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6가지로 말한다. 이중 배려와 돌봄은 생태 여성신학자들이 생태 파괴의 원인으로 남성주의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삼는 가치이다. 그리고 이정배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여 한국은 생태 신학이 생명 신학으로 나아 가고 있음을 말한다. 이정배 “생태학적 신학과 한국신학의 과제,” 『신학사상』 100(1998), 181에서 재인용.

59) 노영상, 『기독교와 생태학』 (성광문화사, 2008), 123-4.

60) 단순함이란 힘과 기득권을 가진 일부 계층이나 필요한 특수 윤리라고 보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단순함의 윤리는 정의를 배제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게 될 위험의 요소가 있다. 그러나 도의 단순함은 오늘날 생태적인 위기를 불러오는 인간 탐욕의 대안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의미한다.

공생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생태적 책임 윤리의 실천이다.

V. 나가는 말

데카르트적 인간관 이후 형성된 서구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와 기계론적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왜곡해 왔으며, 이는 오늘날의 지구 생태 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존 캅의 과정신학과 『도덕경』의 도 사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자연은 인간의 소유나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존재하는 생명의 공동체이다. 자연의 고통은 곧 인간의 고통이며,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은 상호 협력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향한 생태 윤리의 실천이며, 지구의 살림을 실현하는 길이다.

아울러 자연 세계와 인간은 언제나 새로움(novelty)을 향해 나아갈 가능성을 지닌다. 미래는 개방되어 있으며, 인간과 자연은 상호 호혜적으로 서로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움의 추구는 인간과 자연이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며, 상호 협력과 배려를 증진하는 공생의 삶의 양식이다. 서로의 필요를 인식하고 이에 응답하는 책임을 다하는 삶, 이것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태적 윤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노자 원전. 오강남 풀이. 『도덕경』. 현암사, 2003.
- _____. 김화목 옮김,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 홍익출판사, 2000.
- 노영상. 『기독교와 생태학』. 성광 문화사, 2008.
- 박용범. 『기독교 사회 생태 윤리』. 새물결 플러스, 2021.
- 연규홍 외. 『자연 영성과 생태 윤리』. 생명의 씨앗, 2009.
- 이석영 역주. 『노자 도덕경 하상공장구』. 소명출판, 2007.
- 이창호. 『생태신학과 기독교윤리 실천』.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4.
- 장왕식. 『화이트헤드 읽기』. 세창 미디어, 2016.
- 조용훈. 『동서양의 자연관과 기독교 환경윤리』. 대한기독교서회, 2002.
- 갑, 존 비. 이경호 옮김. 『생각하는 기독교인이야야 산다』. 한국기독교연구소, 2002.
- _____. 김상일 역 『존재 구조의 비교연구』. 전망사, 1980.
- 갑, 존 비, 데이비드 그리핀. 공저 류기종 옮김. 『과정신학』. 도서 출판 열림, 1993.
- 프란츠, 알트 지음 손성현 옮김. 『생태주의자 예수』. 나무심는사람, 2003.
- 한면희. 『미래세대와 생태 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7.
- 화이트헤드, A. N. 오영환 역, 『과정과 실재: 유기체 세계관의 구상』. 민음사, 2011.
- 김성호, “지구 위기와 기독교 창조 영성 - 디트리히 본 회퍼의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94(2025) 137-162.
- 김희현, “과정신학의 범재신론 지평에서 본 안병무의 민중 메시아론.” 『신학사상』 140(2008), 233-274.
- 김흡영, “도의 신학에서 본 생명과 생태.” 『현대 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한국 교회환경연구소 엮음. (대한기독교서회, 2015), 269-298.
- 김경은, “현대 돌봄 논의와 돌봄 영성.” 『신학사상』 208 (2025), 417-445.
- 박미경.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생태교육 방법 연구.” 『신학과 실천』 88(2024) 577-598.
- 이성호,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사유-탈식민적 생태비평과 초객체 이런 그리고

- 생태 신학적 의.” 「신학사상」 199(2022), 307-347.
- 이정배. “생태적 신학과 한국 신학의 과제.” 「신학사상」 100(1998), 156-195.
- 조성호. “창조 영성과 기후 위기 시대의 한국교회.” 「신학과 실천」 94(2025) 523-547.
- 조현숙. “돌봄, 상호의존의 연결망.” 「신학과 실천」 84(2023) 453-473.
- 최근덕. “한국의 전통 속에 나타난 환경윤리.”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엮음. 『동양 사상과 환경문제』. (도서출판 모색, 2005), 255-270.
- 채혁수. “Jurgen Moltmann’s Ecological Theology and Christian Educational Application.” 「신학과 실천」 95(2025), 317-342.
- Birch, Charles & Cobb, John B. *The Liberation Life*. Denton: Environmental Ethics Books, 1990.
- Chan, K.L. Alan. *Two Visions of the Wa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 Chan, Wing-Tsit. *The Way of Lao Tzu (Tao Te Ching)*. NY: Macmillian Publishing Company, 1963.
- _____.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 Chang, Chung-Yuan. *Creativity and Taoism: A Study of Chinese Philosophy, Art, and Poetry*. NY: Harper & Row Publishers, 1963.
- Chuang, Tzu. *Chuang Tzu*. Tr. By Herbert A. Giles, Museum Street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889.
- Cobb, John B. *God and the Worl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5.
- _____. *A Christian Natural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5.
- _____. & Griffin, David R. *Process Theology an Introductory Exposi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 Eugene, C. Hargrove, Ed. *Religion and Environmental Crisis*. Athen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6.
- Isasi-Diaz, Ada Maria. *Mujerista Theology*. New York: Orbis Books, 2004.
- Kaltenmark, Max. *Lao Tzu and Taois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 Langford, Thomas, *A Practical Divinit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 Legge, James, *The Texts of Taoism*. NY: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1.
- Shin, Jae-Shik, "Change Rhythm and Spontaneity: Revisioning the Reality of God from East Asian Perspective." Madison, NJ: Drew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7.
- Watts, Alan, *Tao The Watercourse Way*. NY: Pantheon Books, 1975.

논문투고일: 2025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6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생태 위기의 맥락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신학적·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하며, 존 캅의 과정신학과 『도덕경』에 나타난 도 사유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존 캅은 신을 세계와 설득을 통해 관계하는 인격적 존재로 이해하는 반면, 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질서를 이루는 비인격적 원리로 이해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존 캅과 도의 관점은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 또한 생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상호 배려의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이러한 관계가 생태적 건강성과 지속 가능한 삶의 필수 조건임을 논증한다.

주제어: 과정신학, 도, 생태 위기, 존 비 캅, 도덕경, 단순함, 기(氣)
